AI용 반도체 메모리 불확실성 커져
삼성·SK, 대규모 투자전략 시험대

최근 제품별 수급 전망 엇갈려
HBM 수요는 2027년까지 견조
공장증설 등 속도조절 과제 부상

인공지능(AI)용 반도체 메모리 제품별 수급 전망이 최근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신규 시설 가동 시점에 맞춘 설비투자 속도 조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2027년 낸드플래시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 과잉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D램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겠지만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전환으로 가격 상승폭이 분기마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시설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2028년 이후에는 고객사 수요와 생산능력 확대 속도가 시장 상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시설인 5라인 착공식을 열었다. 오는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양캠퍼스에는 5개 라인 구축을 위해 건설비 6조원과 장비 투자비 40조원 등 총 46조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 8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Y2)과 청주 M17 신설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D램과 HBM 생산을 위한 Y2는 2029년 6월, 낸드 생산시설인 M17은 2028년 12월 첫 클린룸 개방을 목표로 한다. 실제 생산능력 확대는 고객사 수요에 맞춰 장비 반입 시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확대하며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계약을 통한 수요 확보와 별개로 실제 출하 규모는 고객사의 구매 일정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 글로벌 낸드 비트 공급량이 전년 대비 25~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주문 축소가 북미 고객사의 구매 확대분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 1분기 낸드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객사 재고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올해 3분기 노트북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5.8% 감소했다. PC 제조사와 북미 유통 채널의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는 올해 4분기와 2027년 1분기 메모리 구매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도 중장기 수요의 변수로 꼽힌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지난 20일 미국 내 미착공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가운데 2028년 이후 가동 예정인 약 66기가와트(GW) 규모가 전력망 연결 지연과 인허가 문제, 신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가 지난 5일 인용한 스위스 투자은행 UBS 분석에 따르면 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 신규 증설 예상 물량의 약 30%가 건설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HBM 수요는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19일 HBM 시장 보고서에서 AI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주문형반도체(ASIC) 출하 확대로 HB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의 영향도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업체들은 공장을 짓더라도 장비를 언제 들여놓느냐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수요뿐 아니라 신규 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모셔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막바지 단계

안전성 검토 마쳐… 연내 美 서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성 검토를 마쳤다. 웨이모와 죽스 등 경쟁업체가 이미 무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본격적인 무인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모셔널은 지난 19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SUD와 현대차그룹, 우버가 참여한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셔널은 연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TUV SUD는 모셔널의 자율주행 안전성 입증체계가 관련 모범지침에 부합하는지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통합 상태를, 우버는 승객 안전과 서비스 운영 준비를 살폈다. 이번 검토는 상용화 준비의 일환이다. 실제 무인 유상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네바다주의 차량 운행·등록 및 여객운송 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모셔널은 2020년 현대차그룹과 미국 앱티브가 공동 설립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다. 아이오닉 5 기반 레벨4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다. 레벨4는 정해진 구역과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단계다.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을 주행하고 있다. /모셔널

모셔널은 지난 3월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우버 연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모셔널이 발표한 누적 자율주행거리는 260만마일(약 418만㎞), 승객 탑승 실적은 14만5000건 이상이다.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의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올해 3분기 총 2546억 8200만원을 출자했다. 모셔널의 1~9월 순손실은 427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별도로 웨이모에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 공급도 추진하며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차량 공급을 병행하고 있다.

무인 운행을 시작하더라도 차량 유지·관리와 원격 지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곧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상용화 이후 운행 지역을 넓히면서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과를 가를 변수다.

/이승혁 기자 sh95@

류재철 "협력사와 미래 성장기회 만들 것"

〈LG전자 CEO〉

LG전자, 협력회 워크숍 성료

"LG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조 혁신을 지속하며 미래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자."

22일 LG전자에 따르면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경기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열린 '2026 협력회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력사와의 제조 혁신을 통해 1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류 CEO를 비롯한 LG전자 최고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88명이 참석했다. 협력회는 LG전자 협력사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구성한 자발적 협의체다.

류 CEO는 "부품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으로 직결되듯,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LG전자의 경쟁력"이라며 협력사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LG전자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2026 협력회 워크숍을 열었다. 류재철 CEO가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이날 LG전자와 협력사들은 공정 자동화와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회와 함께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와 하반기 워크숍을 열고 경영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6' 비즈니스리더 세션에서 AI 네이티브 사회를 위한 교육과 인재 육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후지이 테루오 도쿄대 총장, 최 회장, 사와다 준 NTT그룹 회장, 스기무라 미키 소피아대 총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SK그룹

최태원 "AI 네이티브 대학, 설계부터 달라야"

〈SK그룹회장·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최종현학술원 도쿄포럼
최 회장, AI시대 새로운 교육체계 강조
"지식 전달 넘어 지혜 기르는 역할해야"

"AI 네이티브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설계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2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6'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적인 환경으로 자리 잡는 시대에 맞춰 대학 교육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대학이 협력해 AI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변혁적 기술로서의 AI: 인류, 지식, 그리고 문명'을 주제로 도쿄포럼 2026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앤 부베로 프랑스 정부 AI 특사, 이토 렌 사카나 AI 공동창업자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20일 영상 환영사에서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AI가 만든 가치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변화의 방향을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지식 전달을 넘어 지혜를 기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일에는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비즈니스리더 세션에 참석해 사와다 준 NTT그룹 회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스기무라 미키 소피아대 총장과 AI 시대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AI 네이티브 사회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당연히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라며 "지금의 대학 체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에는 정해진 해답이 없는 만큼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인재 육성 사례로는 SK가 지난달 선보인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 '아이젠(AIGEN)'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팀 프로젝트를 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라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무벡스 주식 일부 현금화

주주환원 확대·자본 효율성 개선 목적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현대무벡스 보유 지분 일부를 현금화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 보통주 650만주를 1025억7000만원에 처분한다고 22일 밝혔다. 매각 규모는 지난달 16일 최초 공시한 예상금액 1157억6500만원보다 131억9500만원 줄었다. 현대무벡스 주가 하락에 따라 주당 처분가격이 1만7810원에서 1만5780원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매각 대상 주식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3곳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넘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거래와 함께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맺었다. 현대무벡스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거래 상대방과 정산하는 구조다.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락하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조기 정산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48.87%에서 43.04%로 5.83%포인트 낮아진다. 지분 축소에도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